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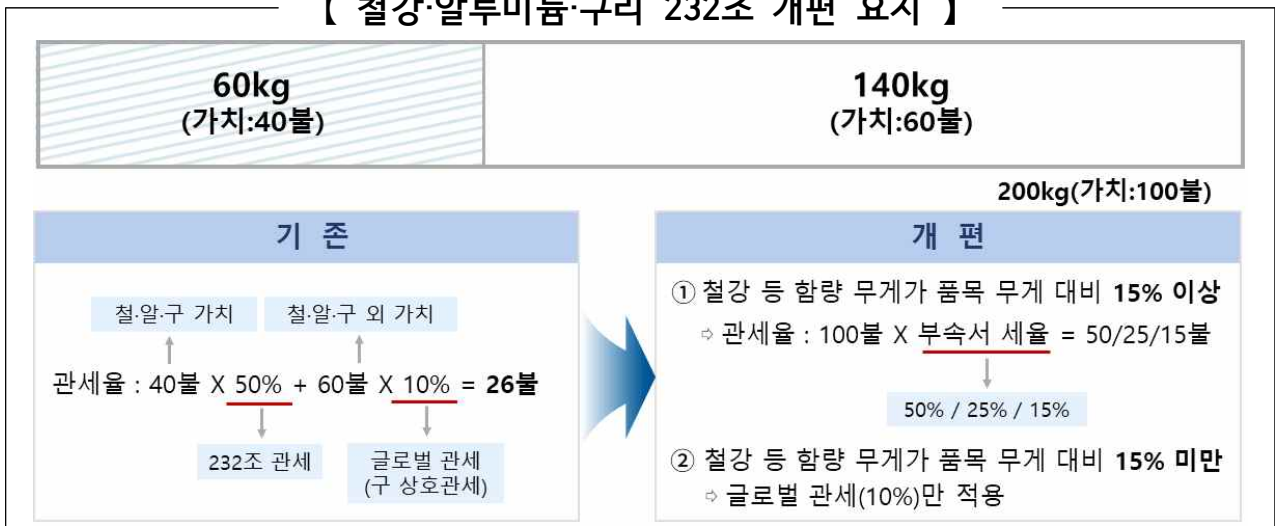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월 9일(목)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개편 요지 】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담당자	서기관	오혜원 (044-203-5942)
			사무관	조석인 (044-203-5943)
			사무관	김현지 (044-203-5913)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	책임자	과 장	강연주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이두정 (044-203-4691)

참 고

美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 시 : '26.4.9(목), 10:00~11:20
- 장 소 :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6명
 - (정부) 본부장, 통상교섭실장,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장
 - (업종단체) 철강, 비철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 (유관기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 회의 안건

- ①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 주요내용 안내 및 영향분석 공유
- ② 업계 애로 수렴 및 대응방안 논의

□ 진행 순서 (※ 사회 : 통상법무기획과장, 언론공개 : 모두발언까지)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사진촬영	참석자 전원
10:05~10:10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10~10:15	5'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조치 주요내용	산업통상부
10:15~10:20	5'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조치 영향 분석	안진딜로이트
10:20~11:15	55'	업계 의견 수렴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15~11:20	5'	마무리발언	통상교섭본부장